

01 교회소식

성경의 복음 땅 끝까지

영향력 있는 해외 기독교포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 권에 성경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전파돼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선(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모습과 교만, 착각을 버려야 한다.

03 기획특집

응답받기 위한 법칙

하나님 능력으로 석회성 건염을 치료받은 딸의 사례를 통해 WCDN 부회장 황준하 박사가 '응답의 법칙'을 소개한다.

04 간증

“구역이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삶의 참 만족을 얻고 사랑과 믿음으로 구역장 사명을 감당해 축복의 열매가 넘친다는 이주현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90호 2013년 7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해외 기독교포털 통해 러시아어 권에 복음 전파 활발

매주 '인빅토리'에 이재록 목사 기도 요청, 간증 쇄도해



하루 30만에서 50만 명이 접속하는 러시아어 권 최대 기독교포털 사이트 '인빅토리'(www.invictory.org)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 러시아어 사용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독교 지도자'를 발표했는데, 그중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TV 설교자', '선교 사역자'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세르게이 벨보베츠 회장은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10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개최된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 교회를 알게 됐다.

이후 우리 교회를 방문 취재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있는 말씀과 하나님 권능을 통해 치료와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더욱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 9개월째 됐을 때 며칠간 태아의 움직임이 전혀 없자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는 권능을 체험하게 됐다. 이로써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강한 성령의 주관 받은 것이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인빅토리 메인화면 배너광고에 우리 교회 러시아어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이 외에도 우리 교회 관련 기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저서 소개, 성도들의 치료와 응답의 간증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게 됐다.

이때부터 수많은 네티즌이 큰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지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해 왔다. 이에 인빅토리에서는 환자 기도 요청란을 개설했고, 접수된 기도제목을 이메일로 우리 교회에 보내 정규 예배 설교 후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이재록 목사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다.

매주 질병은 물론 갖가지 인생 문제 등 700여 건이 넘는 기도제목이 접수되고 있으며, 다양한 간증과 인터넷 등록 성도가 날이 늘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인터뷰

“만민의 사역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세르게이 벨보베츠 회장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부흥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 권능의 역사, 생명력 있는 말씀, 구체적이고 활발한 세계 선교 등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권능이 무엇인지 언론과 미디어

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알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미디어 캠페인과 기사들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관한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역은 네티즌들의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고 변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민중앙교회의 사역과 권능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문제와 기도제목, 질병 등에 대해 기도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와 만민 사역을 통해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은 간증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독교포털 사이트를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 3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를 깨우는 만민의 사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2013년 예능위원회 헌신예배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 군대,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가 지난 6월 30일 본당에서 헌신예배를 드렸다. 1,300여 명의 헌신자들은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찬양 3'이라는 곡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렸다.

강사 이재록 목사는 '찬양(사 43:21)이라는 제목으로 "악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첫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둘째 응답을 끌어내리며, 셋째 큰 영광과 상급이 된다."고 설교했다.

또한 헌신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찬양드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기 바란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능위원회에는 5개 성가대와 세계 최초 찬양 전문 닥시오케스트라, 그리고 천상의 소리선교단, 천상의무용팀, 파워워십팀, 새렘국악선교단, 금관앙상블 등 찬양과 무용, 연주 분야의 24개 예능팀과 솔리스트로 구성돼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5)

하나님 자녀라면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
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
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 전혀 없는 선을 이
뤄야 하지요. 선은 하나님 속성이므로 하나
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선의 기준이 됩
니다(눅 18:19).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자신의 마
음에 있는 악을 발견해 버려야 하나님 사랑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며 모든 행함에 대
한 상급도 온전히 받을 수 있지요. 이처럼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기 정당화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
습을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써 부족한 분야
는 부지런히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의 부족한 분야를 알면서도 변화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
를 댑니다.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
황이기에 비록 더 선한 것을 행치 못할지라
도 악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선도 아닙니다.

예컨대, 온 집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은
익히 들어 잘 압니다. 그런데 한 여성도님
이 교회 직분에는 충성하는데 가정에서 엄
마, 아내,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와 본분
은 등한시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여러 역할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다면 선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 하나님 일로 바쁘다면서 자신의 부족한
분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까 덜 중요한 일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
하고 참아주겠지만 가족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
면 가족이 믿음이 없다면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육
과 영의 갈림길에서 영을 택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이나 일가친척,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맞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심지
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혹여 여력이 되지 않아서 온 집에 충성하
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인해 바쁘다 해도 온 집에 충성하
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분야를
마음에 품습니다. 열 가지 일 중에 두세 가
지 밖에 못한다 해도 마음 다해 사랑과 섬
김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진심을 느
끼므로 서운해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사단
이 송사할 수 없지요. 따라서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사에 자기 중심으로 생
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좇으면서 자기를 정
당화하는 것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2.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참으로 교묘하게 발동합니다. 자
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버리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원래 평
범한 백성으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다. 그러나 왕이
돼 섬김을 받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높아졌
지요. 왕좌를 이용해 권세를 휘두르는 데 익
숙해졌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
조차 두려워해야 할 지경이 됐지요. 사울이
착한 신하 다윗을 죽이려 해도, 제사장의

선(善)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는 무서운 만행을 저
질러도 주변에서 감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민망히 여
겨 숨기까지 했던 사울의 모습이 어느새 이
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사울 왕처럼 높아진 것도 아니
고 교만한 만한 조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누구든지 성결되기 전에는 언제든 교
만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마음의 할례를 더디
하면서도 열심히 내고 헌신한 것만 생각해 자
신은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막상
믿음의 성장이 기대보다 못하면 실망하며
남과 비교하면서 불편해하지요. 또 자신이
머리고 나이드 많고 연륜도 있으니 상대
보다 자신의 의견이 옳고 더 낫다고 여깁니
다. 이렇게 교만이 틈타면 아랫사람이나 주
변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지요. 분명히
상대는 좋은 말로 지적과 권면을 해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질서를 어기는 모습으로도 나타
납니다. 예컨대, 연합회 행사 시 연합 총무
가 한 일꾼에게 분홍색 천으로 행사 장소를
장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일꾼은 분
홍색 천보다 흰색이 더 좋겠다고 건의를 합
니다. 그러나 총무가 “그냥 분홍색으로 해
주세요.” 했지요. 이때 이 일꾼이 연합회장에
게 가서 총무가 분홍색을 지시한 사실은 숨
기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고도 자신은 잘못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보다 위사람인
회장에게 허락받았으니 불순종한 것도 없
고 사명도 잘 감당했다고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 해
도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
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
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
느니라” 했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
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 지 않고 겸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3.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라면 범사에 하나
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단
지 어떤 일을 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더불어 충성하며 항상 화평함을 좇
고 사랑 가운데 상대 유익을 구하지요. 반
면, 자기 보기에 열심히 사람은 책임감과 열
정은 있지만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
님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유를 들면, 어느 선교회 회장이 처음 직
분을 맡아 행정적인 일에 능숙하지 않습니
다. 이를 보고 경험 많은 총무가 안타까워
서 회장에게 업무를 알려 주지요. 그래도 회
장이 잘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은 자신이
앞장서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
다. 총무는 ‘회장님은 가르쳐줘도 잘 모르
네. 내가 다 하면 앞으로 매년 나한테 맡길
텐데.’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일을 진
행합니다. 아니면 세세하게 보고는 하지만
내가 다 했다는 자긍심, 혹은 불만을 담아
서 상대에게 찌르는 표현을 하지요.

또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칩니
다. ‘왜 일을 이렇게 할까? 이것 하나 책임
감 있게 못하냐?’ 하며 마음이 상하지요. 그
러다 보니 짜증섞인 말과 상대를 찌르는 말
도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을 이뤘
기에 총무로서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지요.

이처럼 자신의 열심에 눈이 가려진 사람
은 일하면서 화평을 깨고 질서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으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섭니다. 자신이 선하지 못한 것은 깨닫
지 못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며 열심 내던 모
습도 변질되지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 낸 것이 아닙니
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적인 열심
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는 열심
인지 잘 점검해 온전한 선의 마음을 이루시
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온전한 선을 이
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5626, 5630, 5712, 5714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지역 오거리 정류장/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
연희대동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 5528
504, 643, 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 51, 150, 505, 507,
5531, 5534, 5601,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633, 5713, 6512, 6635, 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결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받기 위한 응답의 법칙

◆ 통증이 심한 석회성 건염을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례

2012년 3월, 딸 찬미가 왼쪽 손목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병명은 '석회성 건염'이었다. 석회화된 돌들이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한 것이다. 다음 날, MRI를 촬영한 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 발견됐다. 이는 골절로 인한 통증만큼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찬미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에 변함이 없었다.

딸은 치료받기 위해 만민중앙교회 부설기관인 만민기도원에서 매일 열리는 환자를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복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 자신을 발견하며 통회자복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환자 집회에 참석해 전날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철저히 통회자복을 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찬미가 포기하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며 철저히 통회자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 하나님께 치료받은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응답의 법칙

- 첫째, 변개함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다. 만약 딸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응답받지 못했을 것이다. 찬미는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불치·난치병을 앓는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목도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곧바로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다.
- 둘째,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딸은 왜 자신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 쉽게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환자 집회에 참석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철저히 통회자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허물 수 있었다.
- 셋째, 응답받을 믿음이 오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이다. 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점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다.
- 이를 계기로 대학생인 딸 찬미를 곁에서 지켜보니 잦은 학과 시험과 과제, 과외활동, 아르바이트 등으로 늘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기도를 쉬거나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고 성결에 대한 사모함도 어느새 미지근해져 있었다. 그런데 매일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다.



황준하 박사(신경생리학, WCDN 부회장)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주최 '제10회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가 지난 6월 14일과 15일, 멕시코 톨루카 시에서 개최됐다. 24개국에서 온 35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로 완치된 치료 사례 발표 외에도 다양한 특강이 있었다. 그 중 황준하 박사의 특강을 요약해 소개한다.

치료 사례 황찬미 자매



☞ 기도받기 전 석회성 침착이 보임 ☞ 기도받은 후 석회가 완전히 사라짐

이후 딸은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과 결코 신앙이 제자리걸음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항상 최우선 돼야 함을 깊이 깨우치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2장 12~14절에는 영적인 믿음의 단계를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했다.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적인 믿음을 측량해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이 조금만 믿음을 내보여도 감동을 받고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신속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알기 원하고 믿음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했는데도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거나 수년간 병약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 공의와 사랑에 따른 특별한 이유들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부부 등 다른 사람의 죄와 영적인 끈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하나님 공의에 따른 응답에 관한 영계의 법칙은 믿음, 회개, 기도, 영적 성장, 영적인 끈 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응답의 조건이 다양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WCDN 제4회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에서 유명한 심장내과 전문의 존시 크랜틀 박사가 발표한 사례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취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심장 발작으로 사망한 환자가 자신의 기도로 살아났다. 이 사실은 미국 폭스뉴스(FOX News)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바로 거기에는 환자의 구원을 위해 가족이 20년 동안 쌓은 기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그가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7.14~7.20

July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Words of Life
 - 감사 - 2013 백주년감사절
 - 1차 영혼육 4-8
 - 사랑장 13-17
 - 지옥 11-15
 - 창세기 강해 34-38, 98, 101
 - 공간과 차원 2-6
 - 나의 믿음은
- GCN TV 설교** GCN TV Sermon
 - 육과 영 7-11 (이수진 목사)
 - 오중복음 4 (신동초 목사)
 - 복있는 사람 4 (신동초 목사)
 - 지혜 (김수정 목사)
 -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한주경 찬양선교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3-4 (정구영 목사)
- 간증 프로그램** Testimony
 - 크리스천 투데이 8-10, 13, 17
 - GCN 간증 스페셜 6-8, 10
- 찬양 프로그램** Praises
 - GCN 파워프레이즈2 6-11
 - 찬양과 경배 3 35, 37, 38, 42, 63, 70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2-16, 22
- 해외성회 시리즈** Overseas Crusade
 - 러시아연합대성회3
 - 독일연합대성회 종합편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가족 복음화와 구역 부흥으로 행복해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주현 집사 (3세대 23교구)



저는 2006년부터 교회에 다니면서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제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지요.

그래서 갑갑한 제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참 목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 영적 믿음을 갖고 가족 복음화를 이루

그러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박미정 성도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회장님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이 영적인 빛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와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십자가의 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종 내용에 감동을 받으며 그동안 제가 찾던 참 목자를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요.

2008년 12월 19일,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해 설교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딸 오혜진 자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적우수 장학생이 됐으며, 현재는 특목고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딸과 저는 남편 오진섭 성도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9월 어느 주일, 예배 중 환상이 보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등 돌리고 있는 남편을 뒤에서 안아주시는 한참 흐느껴 울더니 당회장님 품에 아이처럼 안기는 것이었지요.

2011년 1월, 저는 응답받은 줄 믿고 남편을 위해 3일 금식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교회에 등록했고, 온전한 주일성수와 심일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기도생활과 ‘사랑장’, ‘팔복’ 등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말씀무장에 힘쓰고 있지요. 가정에서도 자상한 남

편으로, 다정한 아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사명을 맡아 사랑으로 감당하니

2010년 하반기부터 구역장 사명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받은 사명이었기에 김수정 교구장님이 성도님들을 심방하실 때 동행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섬기시는지 열심히 보고 배웠지요.

교구장님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으로 심은 만큼 열매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명심해 구역식구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섬기는 자가 되고자 힘썼지요.

2011-2012 송구영신예배를 맞아 개인 기도제목 중 하나를 ‘구역 부흥’이라 적고 당회장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구역식구들을 대하면서 제가 영적인 사랑과 선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들을 사랑과 선으로 대하고자 더욱 힘썼지요.

구역식구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응답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대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시급한 문제는 조장, 지역장, 교구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신

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지요. 구역식구들이 예배와 기도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제 차로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씀도 무장하며 구역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때 정확히 답변해 주고자 노력했지요.

이처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했고 행복했지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구역이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장결자였던 박미정 성도님이 가족과 함께 나오며, 전지현 집사님과 김미연 성도님까지 전도했지요.

장결자를 찾고 전반기 3가정이 등록하는 축복을 받아

박미정 성도님은 전도한 분들에게 GCN 방송 어플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시는 당회장의 설교를 통해 이분들은 큰 은

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요.

그중 전지현 집사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천국 처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마 11:12)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최근에는 아들, 딸도 전도했지요.

김미연 성도님도 가정에 축복이 넘칩니다. 아내가 교회에 나온 후 행복해하자 남편 김득섭 성도님도 금년 1월부터 교회에 출석했지요. 얼마 되지 않아 담배도 단번에 끊었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된 비염을 치료받았습니다. 항상 호흡이 곤란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꽃가루 날릴 때 재채기가 나오고 콧속이 붓는 등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지요. 이제는 기도회도 참석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미연 성도님이 축복받아 행복해하는 모습에 은혜받은 언니 김미애 성도님은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왔다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리며 감동함으로 예배를 드리더니 교회에 등록했지요. 지금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두 딸도 김미연 성도님이 전도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참 목자를 만나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가족 복음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새로운 구역 식구들과 주일 대예배 전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미연 성도 부부와 조카, 이주현 집사 가족(첫줄 가운데), 전지현 집사와 아들, 박미정 성도 가족(뒷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림.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0번지 백성 8/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거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침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